

國際肥料供給計劃은 存糧키로

肥料의 價格安定化方案에 論議集中

第 4 回 FAO 肥料委員會의 會議概要

FAO 의 第 4 回肥料委員會가 지난 9 月下旬 伊太利의 로 - 마에서 開催되어 ① 世界の 肥料消費動向 ② 肥料의 價格安定化方案 ③ IFSS (國際肥料供給計劃) 의 展望 ④ UNIDO (國際工業開發機構) 의 途上國에의 肥料工業移轉問題 등에 關한 討議가 進行되었는데 이러한 議題가운데서 特히 「價格安定方案」이 活潑히 論議되었다.

價格安定方案은 變動이 甚한 肥料價格을 安定시키기 위해 日杼부터 議題에 오르고 있는 것인데 이번會議에서는 ① 長期契約 ② Option 提案 ③ Iran 提案을 中心으로 檢討가 加해졌다. 이 結果 3 項目 모두 「아직도 檢討의 餘地가 있다」는 理由로 決定되지 않았는데 特히 Option 提案에 대해서는 具體化를 尙해 積極的인 意見이 提示되었다.

Option 提案은 供給國이 自國의 國內價格으로 FAO 에 一定量을 Offer , 이에 대해 購入國도 直接 FAO 에 대해 導入計劃을 提示하여 FAO 가 供給需要 Side 의 中間에서서 肥料를 流入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依하면 肥料의 國際價格은 언제나 供給國의 國內價格으로 統一되어 安定된 國際流動價格이 推進된다는 것인데 反面

國際價格이 供給國의 國內價格을 上廻하고 있는 期間동안에만 이 方式이 採用되면 供給側에만 負擔이 되는만큼 이 點을 둘러싸고 供給國側의 強한 불만이 提示되었다. 또 長期契約, Iran 提案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檢討事項을 남겨 具體化로 向한 進展은 보 이게 않았다.

즉 長期契約은 現在와 같이 價格이 低落하고 있는 情勢下에서는 그 뜻이 稀薄하며 또 「肥料의 原料價格과 農産物價格에서 매년 肥料價格을 設定하여 肥料의 價格安定을 戒한다」는 Iran 提案도 現實性이 없다는 것이다. 또 「肥料의 價格安定化方案」과 함께 注目된 「UNIDO 의 途上國에서 肥料工業 移轉問題」에 대해서는 UNIDO 事務局으로부터 今年1 월에 있었던 第1回 UNIDO 肥料 Consultation meeting 의 報告가 있었고 이어 印度代表로부터 注目할만한 發言이 있는 外에는 FAO 肥料로되는 同問題에 대한 方針을 굳치지 않았다.

印度代表의 發言은 同國의 Plant 建設의 經驗으로 미루어보아 建設Cost가 매우 높음으로 (特히 磷酸Plant) 그러한 尠大한 費用을 投入하여 Plant 를 建設, 自給態勢를 整備하는 쪽이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從來와 같이 製品輸入에 依存하는 것이 좋으나? 는 것으로서 이 問題를 中心으로 採算面에서의 比較檢討 가 必要하다는 것

이 發言에 대해 FAO 는 UNIDO 에서는 서로 強한 關心을 기우 렸고, 特히 UNIDO 에서는 來度6 월에 美國 Washington 에서 開催

할 豫定인 第2回肥料 Consultation meeting 에서 議題로 採択
키로 했다.

그런데 來年 6 月의 同 meeting 에서는 世界의 生産豫測 Plant
建設에 關한 契約에 關해 討議키로 되어있다. 한편 「世界의 肥
料消費動向」에 대해서는 肥料消費는 石油危機後 漸次 回復되고 있
으나 石油危機以前의 水準에 比하면 數% Short 하고 있다는 것이
衆論이었다. 그리고 世界의 肥料需給狀況에 關해서는 現在와 같은
緩和傾向은 적어도 1981 ~ 1982 年度까지 繼續되리라라는 것이 參加
者들의 一致된 見解였다.

또한 IFSS (國際肥料供給計劃) 에 대해서는 東南亞, 아프리카, 中
南美의 途上國이 同計劃의 存続 強化를 施調하는 同列 先進國側에
서도 이에 대한 異論을 提起치 않아 滿場一致로 同計劃의 存続을
決定했다.

第4回 FAO 肥料案은 以上과 같은 議題를 主로 다루었으나 이밖
에 磷鉍石의 採掘能力 및 埋藏力에 대해 ISMA 의 資料가 配付되
어 討議가 있었으며 Iran Mexico 등에서 「磷鉍石價格이 너무
싸다」는 意見이 題議되었으나 磷鉍石 問題에 關한 討議는 12 月
에 豫定되고 있는 VNCTAD (國聯貿易開發機構) 의 會合結果를 보고
採択키로 했다.